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성료

21개국 96편 상영 · 85명 영화전문가 참여 25회 프로그램 · 이벤트 등 다채롭게 열려

무주의 초여름 속 영화와 함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지난 9일, 5일간의 영화 소풍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약했다.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총 5일간 21개국 96편의 영화들이 무주의 다양한 실내상영관과 야외상영장에서 상영되었다. 총 25회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 토크시네마, 산골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는 올해의 넥스트 액터 고민시를 비롯하여 변영주 감독, 이원석 감독, 공명, 하운경, 이레 등 상영작 게스트들과 배순탁 작가, 박준우 셰프 등 85명의 국내 주요 영화인들 및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영화를 사랑하는 무주의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다.

또한 무주산골영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개막작 <한국이 싫어서: 라이브>, 박기훈 뮤지션과 연리목 음악감독이 참여한 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 <무주영화 라이브 연주>와 오재형 감독의 실내 <필름콘서트: 피아노 프리즘>, 아이들과 가족 관객들을 위해 영화 상영과 공연이 마련된 <키즈스테이지>는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들였다. 이와 함께 무주산골영화제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가능케 하는 학술 행사 <아카데미 토크>에는 예상을 넘어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무주산골영화제에 대한 사람들의 큰 관심과 앞으로의 기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산골콘서트, 야외토크, 넥스트 액터 전시, 산골책방 등 무주산골영화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남녀노소 모든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이무진, 10CM, 카더가든을 포함한 예년보다 도전적인 공연 라인업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지난 9일, 5일간의 영화 소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시상식 사진)

은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고, 넥스트 액터 전시에는 2천 5백여명의 관객들이 찾아 넥스트 액터 프로그램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주산골영화제 시작 전, 등나무운동장 일일 입장권 사전예매율 93.1%, 실내 상영 사전예매율 81.9%를 기록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영화제를 시작했으며, 5일간 1만8,803명의 유료관객 포함 총 3만5,000여명의 관객들은 무주산골영화제의 실내외 행사장을 찾아 아름다운 무주에서 다시는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을 누렸다.

이번에 영화제를 참여한 영화인들과 관객들은 "감동적인 영화제였고, 행사운영 역량에 감탄했다." "모든 것이 에피소드고 낭만이다", "진짜 '자연 속 낭만 영화 소풍!' 등 영화제의 정체성, 프로그램, 운영 능력 전반에 대해 호평을 아끼지 않았으며, 영화인들이 가장 방

문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로망 영화제이자, 영화와 자연과 음악, 영화인과 관객들이 어우러지는, 초여름을 대표하는 유일무이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낭만 영화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2024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무주군과의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운영 준비를 통해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영화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KTX-교통 패키지'와 '무주덕유산리조트-숙박 패키지' 상품을 소개하며 관객들의 편리한 무주 방문을 도왔으며, 지난해 축제 모범 사례로 손꼽혔던 바가지요금 없는 간식부스 운영과 일회용품 최소화한 다화용기 시스템을 올해도 체계적으로 운영해 무주산골영화제를 찾은 관객들로부터 또 한 번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단오맞이 세시풍속 행사 성황리 열려

한국전통문화전당(이하 전당, 원장 김도영)이 민족 고유의 세시풍속인 단오를 맞아 진행된 '단오맞이 세시풍속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단오맞이 행사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천년한지관 △전주공예품전시관 △우리놀이터 마루달 등 전당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서 진행되었다.

전당에서는 한지와 한식을 주제로 6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원한 여름 과일화채와 한지부채를 만드는 체험을 진행했으며, 8일과 9일에는 하루 5회 일정으로 한지 바탕부채 만들기 체험을 운영했다.

전주 흑석골에 위치한 전주천년한지관에서는 7일 단오맞이 단선 부채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10호 방화

선 선자장을 특별강사로 초빙해 참여자들로 하여금 높은 만족을 이끌어냈다.

또한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과 우리놀이터 마루달에서는 8일과 9일 이틀간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전주공예품전시관 오목대 전통정원에서는 전통 민속놀이 겨루기 대회와 비눗방울쇼 등의 이벤트를 진행해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우리놀이터 마루달에서는 찜포물에 손 씻기, 석전 단오부적 표적 맞추기 등 단오 풍습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을 진행해 세시풍속의 의미를 되새겼다.

아울러 전당은 전주시 대표 절기축제인 '2024 전주단오' 행사에도 참여, 전통 세시풍속을 알릴에 뜻을 함께했다. 전당은 행사기간인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압입마켓(다양한 공예상품 판매, 호사원 포토존, SNS 이벤트



운영 등) △전통놀이 체험(쌍륙, 고누, 마당놀이 등) 등 부스를 진행해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단오는 더운 여름을 맞이 전의 초하(初夏)의 계절로 여름을 시원하고 무탈하게 보내기 위한 다양한 세시풍속이 행해지고 있다"며 "전당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가 시민들에게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찾아가는 문화장터

12월까지 총 17회 도내 각 주민센터서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12월까지 17회에 걸쳐 도내 각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문화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적 여건, 고령 등 이유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용이 어려운 도내 지역 주민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직접 찾아가는 행사다.

장터에서는 도내 참여 협력가맹점이 엄선한 미술·공예·캠핑·체육용품 등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누리카드 또는 일반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선착순(영수증 지참 필수)으로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특히 7월 이후 연 5회 문화트럭을 운영, 주민센터와 지리적 여건이 멀어 카드이용이 불편했던 도민들에게도 새로운 이용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11월 30일까지 전국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 누리집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금액은 1인당 13만원으로 전년 대비 2만원 상향됐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문화장터를 통해 접근이

전북문화누리과 함께하는
2024 문화장터

수권예매, 캠핑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문화누리카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은품 증정

혼합잡곡 세트
8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증정 장바구니

생활용품 세트
13만원 전액소진 시

※모든 상품은 상황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용자들에게도 문화누리카드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많은 이용자들이 삶의 활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소득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jct.or.kr)이나 교육문화팀(063-230-745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낭만에 취하는 남원의 밤 '인기'

남원시, 지역주도형 관광 활성화 RE-PLUS 사업 관광객 만족도 높아

남원시가 RE-PLUS(리플러스)사업을 통해 광한루원에서 즐기는 힐링 명상 프로그램 '별명달망'의 성공에 이어 레트로 감성의 먹거리와 공연이 어우러진 '월광포차'까지 대박이 나고 있다.

RE-PLUS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기존의 전통문화에 국한된 남원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문화자산 발굴을 통한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지리산과 섬진강이라는 천혜의 자연을 갖춘 남원에서는 유난히 선명한 별과 달을 볼 수 있어 '별명달망'은 광한루원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힐링'과 '밤'을 주제로 개발된 치유 프로그램이며,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24 관광 트렌드 중 하나인 '밤이 있는 여행'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한 달 전 사전 예약 마감되고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 광한루원 서문 경외상가에서 열리는 월광포차는 (주)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의 레시피와 남원의 농산물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와 90년대를 풍미한 김장훈, 민경훈, 김중서 등 인기 가수들의 특별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운영 2회 만에 일만여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 남원 대표 관



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별명달망 달달시네마'는 해 질 녘 광한루원, 서도역 등 감성적인 공간에서 대형 스크린을 이용해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영화 상영 프로그램이다. 영화 상영 전 재즈 공연, 오키리나 공연 등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 밖에도 네이버 사전 예약을 통해 친환경 전기자전거, 피크닉 바구니, 한복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무료로 대여하는 열린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625-1350)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호를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다.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